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후기 작품의 치유환경적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Healing Environment in the Late Work of Frank Lloyd Wright

김 광 호*
Kim, Kwang-Ho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Healing elements in the late work of Frank Lloyd Wright. Healing elements are mainly composed of physical, social and psychological functions, which are clearly reflected in holistic attitude and intuition in his Organic theory of Architecture. Late works of Wright since 1935 show particularly shapes of triangle and circle creating the emotional images associated with Hope and Infinity. His image-oriented design attitude is thought to be strongly related to the pursuit of Utopian ideal which means peaceful condition. He regarded it as the consequence of integrity and control, which could be thought as condition of Healing environment. Refuge and Prospect can be complementary elements of spatial expression representing peaceful and dynamic condition of the Nature itself. Five works selected in this case study have unique design ideas related to the function and image of Healing environment interpreted by the criteria of Refuge and Prospect.

키워드 : 치유 환경, 피난처성, 조망성, 이미지

Key words : Healing Environment, Refuge, Prospect, Image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치유(healing)’의 개념은 ‘치료(treatment)’의 타율적이고 결정론적인 의미와 비교하였을 때 자율적이고 선택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치유환경의 개념은 환경의 총체적인 특성이 인간의 육체와 정신의 건강회복과 예방에 도움이 되고 있는 상태를 일컫는 것으로 현재 성행하는 생태 건축운동의 진정한 목표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Frank Lloyd Wright, 1867-1959, 미국)의 건축사상은 유기적 건축(organic architecture)개념으로 주로 설명되어 진다. 자연의 시스템과 이미지에서 유추(analogy)된 건축 공간과 형태의 디자인 아이디어를 중시하는 이 사상은 인위적 문화의 프로그램이나 인공적인 사물에서 유추되거나 은유(metaphor)되는 디자인 방법을 통해서 실현하기 어려운 치유의 측면을 강하게 내포한다.

이 연구는 라이트의 1935년 이후 후기작품에서 삼각형

과 원형의 특이형태를 통해 작용하고 있는 치유환경적 기능을 심리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또한 병원프로그램이 아닌 그의 주거, 종교 및 문화 공간 등의 디자인에서 다양한 치유환경 요소들을 발견함으로써 근대건축의 유기적 공간이론을 생산적인 관점에서 재조명하고자 한다.

1.2 연구방법과 범위

라이트의 유기적 이론은 자연과 인간, 정신과 육체등의 대조적 존재성을 합일적으로 생각하는 동양의 일원론(monism)적 사고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건축디자인의 해석에 있어서는 물리적 기능과 심리적 기능의 양 측면이 따로 수행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다뤄야 보다 적합한 학문적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물리적, 사회적 그리고 심리적인 측면을 아우르는 ‘총체적 치유환경(total healing environment)’의 개념은 이러한 이유로 인해 라이트의 디자인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것이다.

라이트의 건축철학이 총체적이고 유기적인 특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그의 디자인은 항상 직감적 영감(inspiration)

* 정회원, 인하대학교 건축학부 조교수

** 이 연구는 2006년도 인하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진행됨

을 통해 그려지는 평화로운 이상향(utopia)의 이미지를 두고 시도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는 촉감적인 ‘피난처성(refuge)’을 중심으로 시각적 ‘조망성(prospect)’을 연계시켜 방어와 도전의 대조적 공간에너지간의 상호보완적 특성이 강한 것이었다. 그의 이미지 개념은 안정과 평화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추구한 그의 신조와 결부된 심리치유적 가치를 지닌 건축어휘인 것이다.

공간표현의 요소로서 피난처성과 조망성은 총체적 치유환경의 개념 중에서 심리적 기능의 측면을 보다 상세히 해석하는 적절한 기준이 되는 이미지 개념이라 보며 이는 자연에서 유추하는 직감적 아이디어를 중시한 라이트에 있어서는 보다 강조되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라이트의 치유적 공간표현을 상세히 분석할 수 있는 기준으로 피난처성-조망성 이론과 라이트 사상의 연관성에 대해 고찰한다. 그리고 사례연구에서 그의 후기작품 중 삼각형과 원형의 형태를 주요소로 한 5개 작품을 총체적 치유환경으로서의 기능과 피난처성-조망성의 공간표현특성을 기준으로 고찰하여 그의 이상향의 이미지와 연계되어 특이형태에 내포되어있는 치유공간으로서의 특성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2. 피난처성-조망성 이론과 라이트의 치유환경

‘피난처성(refuge)’은 신체주변의 환경적 장치가 ‘나’또는 ‘우리’를 향해 가까이 수렴되는 형국을 지닌 보호적 감각의 공간적 조건을 일컫는 것이다. 친근한 거리의 환경조건이기에 시각각(vision)보다 촉감적으로 보다 민감하게 읽혀지고 공간적 여정의 시작과 끝이 되는 근원성을 갖는다. 사용자를 중심으로 생각 할때 좌우 약120도 및 상하 약 60도의 시야 범위를 벗어나고 신체에 가까운 부분은 가시적 형태원리가 적용되지 않기에 다분히 주관적이고 직감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것이다.

조경가인 제이 애플턴(Jay Appleton)이 말한 ‘피난처와 조망성’ 개념은 공간 심리적인 면에서 매우 타당성이 있는 이론으로 여겨진다. 이는 보호적이며 상대적으로 압축된 스케일의 공간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적게 드러내면서도 주변경관을 최대한 확보한 존재만이 장소적 우위를 선점해 왔다는 이론인데 단지 물리적이고 동물적 차원을 넘어서 문화적이고 정신적인 면에서 깊은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프라이버시(privacy)’가 배타적인 개인공간을 일컫는 것에 반하여 ‘피난처성’은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써 공동체적인 보호성을 포함하는 면이 다르다. 심리적인 안정성을

주는 환경을 위해선 경우에 따라 주변의 사람들과 공간의 단위를 공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고 이는 벽체나 간막이를 통한 물리적 처리의 수준을 넘어 사회적, 심리적인 요인에 근거한 공간적 스케일의 기본단위 설정에 관한 것이다.

‘안정(peaceful condition)’의 개념은 피난처성의 목적이 되는 심리상태로서 다음과 같이 라이트의 어록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치유적 감정상태와 공간표현의 연관성에 대한 라이트의 각별한 관심을 총체적 디자인 방식과 연계하여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안정은 완전성(integrity)에 있어 건축예술에서 최고의 요소이며”

(1931)

“... 전체와의 관계 속에 완전히 조정되어 있을 때 이 안정은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이다.”(1894)¹⁾

안정은 피난처성에서 적용되는 신체와 가까운 범위의 건축적 장치 처리에 있어 심리적인 배려를 통한 ‘친근성’과 행태(behavior)적 배려를 통한 ‘편리성’을 통해 도달하는 만족의 상태로써 물리적인 측면을 포함하는 뉘앙스의 개념으로 그 자체가 총체적 디자인을 강조하는 라이트의 사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조망성(prospect)’은 신체적 접촉범위를 벗어난 부분들을 바라봄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지 물리적 시각의 차원을 넘어 문화적, 사회적 경관까지 포함한다. 피난처성과 마찬가지로 조망성 또한 개인적인 조망과 더불어 공동체적 조망에 의해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크게 외부(exterior), 내부(interior) 그리고 내면적(internal) 조망성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여기서 내면적 조망성이란 실외와 실내란 물리적 조건을 떠나 마음속에 그려지는 이미지(image)를 일컫는 것으로 피난처성과 같이 비시각적인 개념으로 라이트에게서 특히 중요시된 것이라 생각된다.

건축 공간에서 시선의 흐름은 주로 피난처적 공간의 감지에서 출발하여 내부조망 그리고 외부조망의 순으로 전개되며 나아가 내면적 조망으로 변환되어 기억하는 과정을 거친다. 피난처성과 달리 조망성의 가치는 시각각에 의존하고 객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형식미학에 해당하는 다양성과 통일성(variety & unity) 의 디자인 원리에 주로 따르며 체험적 내용에 있어서는 환상적인 변화의 경이성(wonder)과 현실적인 질서의 가독성(legibility)간의

1) Wright, F.L, 윤정섭역: 라이트의 건축론, 건우사, 1985, p45

균형에 의해 좌우된다. 이는 내부와 외부조망간의 상호보완적 조건 조성을 통해 깊이 있게 구현될 수 있는데 내부조망이 부족한 경우 외부조망으로 충분히 보완하는 것이 적합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대체 조망으로서 실내공간의 독창적 내부조망성 조성은 거대한 규모의 공적(public) 공간을 갖춰가는 현대 건축에서의 큰 이슈이다. 장식적 색채와 재질의 차원을 넘어서 외부자연공간에서의 유기적이고 변화로운 경이(wonder)의 체험을 유추(analogy)와 은유(metaphor)등을 통해 내부조망의 요소로 재현하는 기법은 라이트 작품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으로 그가 추구하는 평온한 이상향으로서의 내면적인 치유적 이미지와 연관시켜 연구 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 본다.

이러한 조망성의 개념은 라이트에게 있어서 '자유'나 '해방'의 의미로 자주 표현되었다. 입구나 복도를 의도적으로 작고 어둡게 압축한 다음 상대적으로 큰 팽창감으로 나타나는 거실과 홀 등의 주공간은 피난처성에서의 친근감 같은 소극적 체험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역동성과 승고성을 일깨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조망성을 수용하는 주관적 틀로서 조형에 대한 라이트의 의식은 어린시절에 받은 프뢰벨 가베 교육으로 인해 표현적 특성을 갖는데 이는 사각은 완전을, 원은 무한을 그리고 삼각형은 포부를 나타내는 상징성과 연관된다. 그의 후기에 자주 사용된 원과 삼각은 완전한 사각형의 경직된 긴장성을 이완해 줄 수 있는 끝없는 희망의 감정상태, 즉 심리적으로 해방된 상태를 추구하는 이상향의 개념과 어릴적 조형교육의 기억이 합쳐진 결과로서 사용된 것이라 본다.

피난처성과 조망성 개념은 그 연계적 의미에 있어서 전체적이고 객관적인 공간구성(composition)의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절삭(cutting)' 및 '첨가(adding)'하는 디자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데에 반해 부분적이고 주관적인 심리의 측면에서 주로 공간에너지의 연속적인 '압축(compression)' 및 '팽창(expansion)'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즉, 디자인의 원동력이 공간구성위주의 사고에서는 '창의성(creativity)'임에 반해 여기에서는 '심리적 배려(psychological care)'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치유의 측면이 강한 것이 다른 점이다.

사용자 입장을 강조하는 이 개념은 환경심리적인 측면에서의 거주 후 평가(post occupancy evaluation)를 위한 기준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생산적인 관점의 공간이론을 구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스위스 심리학자 막스 뤼셔(Max Lüscher)의 주요 네가지 감정상태 이론²⁾은 자율적으로 균형된 감정의 평온상태

를 추구하는 것으로 라이트의 이상향을 지향하는 정신과 일맥상통한다고 여겨진다. 라이트의 디자인태도는 뤼셔의 이론 중 '만족(content)'과 '자존(self-esteem)'의 감정상태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며 이에 해당하는 공간표현의 요소는 '피난처성'과 '조망성'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공간의 심리적 압축과 팽창상태에 각각 해당되는 것으로 상호작용을 통해 음과 양의 대비적 공간 에너지를 표현한다. 피난처의 눈에 잘 띄지 않고 어두우며 가라앉은 공간적 감성은 조망성의 두드러지고 밝으면서 고조된 감성적 특성과 함께 대비되어 예술적 섬세함의 높은 완성도가 추구되는 것이다. 그의 작품의 대다수는 넓은 초원 위에 지어진 것으로 대자연으로부터의 피난처로서의 존재와 역으로 대자연을 향한 조망을 확보하는 장소로서의 존재가 동시에 강조되고 있다. 이는 수동적 만족과 능동적 자존의 감정상태가 공존하는 역설적인 상황과 같은 것으로서 은둔해 있어 자신의 범주에 머물고 있으나 높은 자존의식을 통해 만족을 유지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모든 사물과 현상의 본질이 하나라는 일원론적 자연관 아래 대조적 요소간의 차이를 더 두어 대비를 부각시키는 것은 역설적으로 서로 다른 객체의 존재성을 보다 인상 깊게 체험하게 함으로서 오히려 주체인 나와 하나인 존재로 통합하여 인식하는 결과로 유도되는 효과를 갖는다고 본다. 자연이 스스로 평온한 상태를 되찾아 나가는 순환과정은 자가 치유력을 갖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이 자연과 하나라는 인식에서 스스로를 치유하는 내면적 의지가 강해짐은 라이트의 건축어휘가 표현하고 지향하는 근원적 의미라고 생각된다.

도시문화의 맥락(context)적 상황이 약하게 주어졌던 라이트의 작품들은 상대적으로 주거 본연의 내밀한 심리적 요건을 보다 심층적으로 성찰하고 디자인작업에 임할

2) 김광호, 공간표현과 감정특성간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의료복지시설학회지, 11권 2호, 2005 p63-65

: 뤼셔의 심리치유 이론은 '만족', '자신', '자존' 그리고 '내면적 자유' 네 가지를 주요한 감정상태로 보고 이들 간의 상호보완성과 균형이 심리적 건강의 필수요건이고 인간의 심리적 성향 및 문제점 분석의 근간이 되는 기준으로 제시한다.

뤼셔에 의하면 개개인의 인격적 성향은 이 네 가지 요소 중 두 가지 가치에 주로 치우친 면을 보이고 그 결과로서 여섯 가지 조합의 성향들로 분류된다고 한다. 심리적 감정표현의 주요 요소로 제시된 뤼셔의 만족, 자존, 자신 그리고 내면적 자유에 각기 해당하는 공간표현의 요소는 피난처성(refuge), 조망성(prospect), 흐름(flow) 그리고 허공(void)이라고 볼 수 있다. 공간구성개념과 달리 '공간표현'이란 개념은 물리적 객체로서 보다 주체로서의 건축가의 창작의 의미를 강조하여 심리적 요인과의 연계를 다루는데 있어서 적합한 것이다. 라이트가 보이는 만족과 자존추구의 유형은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에 의한 '자존'을 '만족' 속에 살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경우로서 수동적 만족상태를 추구하나 능동적인 자존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결합되어 도피적인 인상을 보이진 않는다.

수 있는 조건에서 이루어진 것이 대다수이다. 그리고 이로 인한 세밀한 심리적 배려의 강조는 치유환경적 성격을 강하게 조성하고 있다. 다음 장의 사례연구에서는 피난처성과 조망성이 라이트의 작품에서 표출되는 심리적 성격을 분석함에 적합한 기준으로 사용되었으며 그들 간의 조화와 균형의 방식은 치유환경으로서의 가치를 진단하는데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되었다.

3. 사례 연구

사례로 선정된 작품은 먼저 삼각형을 주제로 한 것으로 사적용도인 팔머 주택과 공적용도의 유니테리언 교회를, 그리고 원형을 주제로 한 것으로 사무시설인 존슨웁스 건물과 전시시설인 구겐하임미술관이며 그의 사후에 지어진 원형의 파이프주택을 마지막에 추가하여 라이트의 후기작품을 형태와 용도별로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고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3.1 팔머 주택(Palmer Residence, 1950, Ann Arbor, Michigan)

이 주택은 라이트의 후기작품으로서 유소니언 주택의 전형적인 평면의 공간구성 다이어그램을 유지하고 있으나 정삼각형 모듈의 그리드(한변=1.2m)를 이용해 직각의 패턴이 없는 사선형태가 평면과 단면 모두에 적용되어 공간의 흐름을 역동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삼각형 그리드의 사용은 사각형보다 자연의 불규칙한 형태 패턴에 가깝게 인지 되도록 함으로써 외부공간적인 내부조망성의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이 주택의 공간구성에서 볼 수 있는 두드러진 특징은 규모에 있어 압축된 사적공간과 팽창된 공적공간간의 극적 대비효과이다. 이는 그의 다른 작품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이나 이 작품에서는 비밀상적인 삼각형 패턴의 신비롭고 모호한 특성과 결합하여 특히 강조됨으로서 직각의 패턴보다 효과적으로 점진적 감정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거실은 100m²정도인 주택전체 연면적의 1/2정도를 차지하여 일반적 거실규모보다 2배정도 입체적으로 팽창되어 있는데 식당공간과 구분되는 장치 없이 높은 경사 천정면 아래 하나의 큰 홀처럼 처리되어 메자닌층을 두는 복층형구성이 아닌 소규모 단층주택에서 찾기 어려운 장대한 공간감을 갖고 있다.

주방과 복도는 거실의 큰 창과 대비되어 유리를 끼운 블록(glazed ceramic unit)을 통해 자연채광을 충분히 도

입하면서도 반복적인 친밀한 스케일감과 피난처적 감각의 조성을 가능케 하고 있다.

거실 등의 공적 공간들 보다 상대적으로 작게 설계된 침실들은 일반적 침실크기보다 1/2정도로 매우 작게 압축된 공간감을 준다. 작은 침실은 일견 이해가 안 될 정도의 규모로 인지되나 실제 상세구성에 있어서는 신체와 근접한 거리에서 대부분의 가구와 창문 손잡이 등이 위치하도록 하고 작은 행동반경 내에서 적은 운동량으로도 많은 실내장치들을 조절할 수 있게 함으로서 장애인 및 노약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활동의 지원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안방에서 창문이 화장대겸 책상위에 약간 높게 설치되고 그 중간에 거울을 두어 한쪽 벽면을 다용도로 활용함으로써 나머지 벽에 벽난로와 책장 등이 놓일 수 있게 하고 있다. 창문의 크기가 작지만 실내공간의 작은 크기(약 10m²)와 상대적으로 부합됨으로서 책상의자 및 소파에서부터 친밀한 감각의 피난처성이 부여된 가운데 외부조망(exterior prospect)을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벽난로(hearth)는 물리적 측면과 이미지적 측면에서 피난처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데 한 주택 내에서도 프로그램 측면에서 피난처성이 강한 안방에 설치됨으로써 그러한 감각을 배가시키고 있다. 좁은 공간이 줄 수 있는 부정적인 감정상태인 밀폐감과 압박감은 이 경우에 있어 친근성 및 편리성과 결합된 높은 피난처 감각 및 외부조망으로 인해 상당히 축소되어 있다. 장시간의 침실 내 생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압박감도 거실공간으로 이동시 체험하는 상대적 스케일 팽창으로 인한 해방감으로 인해 해소되어 진다. 이는 좁은 침실공간이 불편할 수 있다는 선입견을 불식시키는 경우로서 세밀한 디자인적 배려를 통해 작은 공간의 침실이 오히려 편리한 기능을 갖고 긍정적인 심리적 효과를 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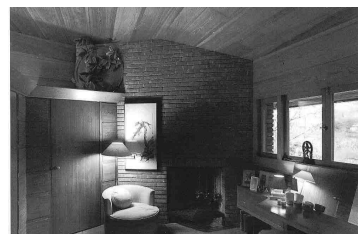


그림 1-1. 팔머주택 안방 내부

작은 침실은 가족들 각각의 매우 개인적인 활동만을 지원하는 규모인 대신 입체적으로 트인 쾌적한 조망성의 거실 공간은 상대적으로 큰 흡인력을 갖게 되어 가족구성원들이 모이는 시간이 증가되는 효과를 주게 된다. 이로서

가족의 공동체 감각이 향상되는 결과를 낳아 사회적 치유 환경으로서의 조건을 갖추게 되고 있다. 이 주택 공간은 물리적 기능과 심리적 이미지 측면 모두에서 가족의 심리 및 행태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아이디어로서 피난처성과 조망성의 연계와 균형을 원활히 이루고 있음에서 총체적 치유 환경으로서의 기능을 확인 할 수 있는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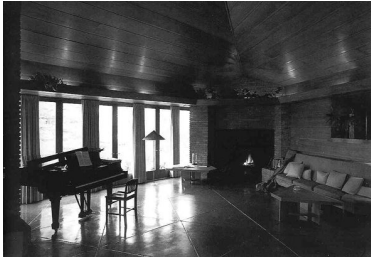


그림 1-2. 거실 내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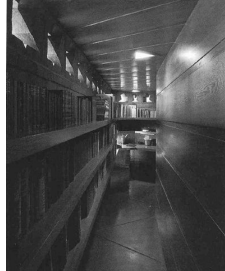


그림 1-3. 복도 유리끼 운블록 고층창 채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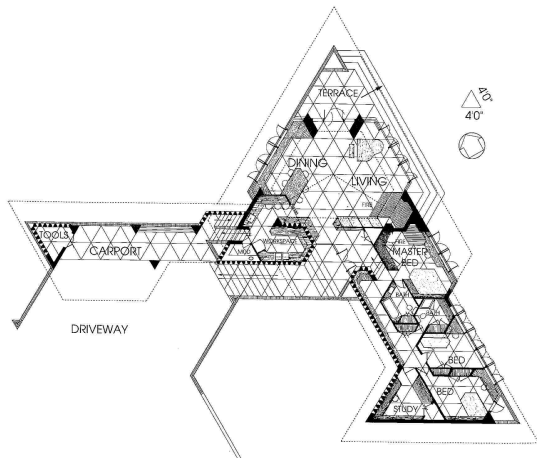


그림 1-4. 팔머주택 평면도

3.2 유니테리언 교회(Unitarian Church/Meeting House: 1947, Shorewood Hills, Wisconsin)

이 작품에선 팔머 주택에서와 같이 삼각형의 패턴이 평면과 단면에 모두 적용되어 공간의 압축감과 팽창감이 직각패턴에서 보다 점진적인 연속 조망(visual sequence)으로 표현되고 있다.

지붕의 형태는 온화함과 사랑을 상징하는 '기도하는 두 손'에서 유추된 것으로 십자가를 두지 않는 개신교종파인 유니테리언교의 특성을 기도하는 대상보다 기도하는 주체인 신도의 존재를 강조하는 이미지로 상징화하고 있다. 외관형태의 주제가 그것을 보는 신도 자신의 기도행위를 연상하게 하여 객체에 주체의 감정이입이 이뤄지도록 하는 이러한 디자인방식은 라이트의 공간철학의 일원론적

특성에서 기인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여기서 삼각형은 일체적 조화와 균형을 상징하는 것으로 표현의도를 적합하게 전달하는 방편이 되고 있다.

평면구성은 팔머 주택 에서와 유사하여 침실과 같은 위치에 소모임실들이 그리고 거실과 같은 위치엔 주예배공간을 두고 있다. 입구홀에서의 낮은 천장으로 인한 압축된 공간감은 경사지붕을 통해 상승하는 주예배공간의 팽창으로 상대적으로 배가된 해방감을 체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소모임실 앞의 복도는 일직선의 획일적 구성이 아닌 툄니형 구성으로 친근한 스케일 감으로 각실 공간의 입구로서 정체성을 높여주고 있으며 밝은 채광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이트의 작품 중에서도 이 작품이 갖는 특성은 내부공간의 측면 외에 외관에 있어서도 상승하는 지붕의 형태를 통해 직감적인 방식과 기도하는 신앙적 행위를 연상하는 유추적인 방식 양 측면에서 바라보는 이로 하여금 직·간접의 심리적인 해방의 효과를 주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2-1. 유니테리언교회외관



그림 2-2. 주 예배공간



그림 2-3. 소모임실앞 툄니형 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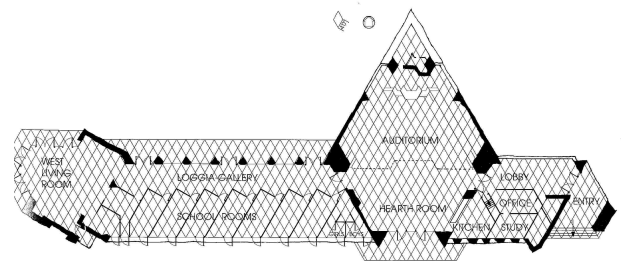


그림 2-4. 유니테리언교회 평면도

3.3 존슨왁스 건물 사무동(Johnson Wax Administration Bldg., 1936, Racine, Wisconsin)

나팔꽃 같은 직경5.4m의 원반과 높이7.2m의 원기둥은 숲 속 또는 물속에서 위를 바라보는 자연공간을 은유적인 환상으로서 건축공간에서 체험 가능케 하고 있다. 천창의 빛은 원반사이의 틈에서 스며들어와 전체천장면적의 1/2 이내에서 생성되고 원반의 하부면을 타고 내려오고 있다. 기둥간격이 약6m정도로 높이에 비해 넓지 않으나 기둥하부가 매우 가늘어 지어 사람들의 행동반경과 공간적 시야를 자유롭게 확장시켜주고 있다.

이 공간은 탁 트인 잔디밭과 달리 마치 숲속 산림욕에서 체험 가능한 것으로 나뭇잎 사이와 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빛을 고개 들고 쳐다보며 친근감과 숭고감을 동시에 누릴 수 있게 하고 있다. 즉 아늑하게 감싸이는 피난처성과 신비로운 리듬감의 조망성간의 균형감에 도달하는 것으로 감정적으로 고조되는 상승감이 안정된 상태로 이뤄지고 있는 효과적인 심리치유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건물의 부지는 공장지대에 속하여 외부경관을 통해서 자연미 또는 도시적 활력 모두를 얻을 수 없는 조건을 갖고 있다. 라이트는 이러한 부지의 열악한 외부 조망성을 보완하는 대안으로서 자연공간에서 피난처성과 조망성이 균형을 이뤄 조성하는 안정감과 해방감을 내부조망성에서 재현함으로써 해결한 것이다. 대형공장의 스케일에 맞게 장대하게 연출되는 이 허공(void)은 사무원들의 개인 작업공간과 공유됨으로서 공동체성과 생태적 체험 그리고 개인적 사색이란 허공의 숨어있는 기능들을 총체적으로 수행하는 치유 공간으로서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본다.



그림 3. 존슨왁스건물 내부 대형 사무공간

3.4 구겐하임 미술관(Guggenheim Museum, 1956, New York)

라이트의 유기적 조형성이 합리적 패턴의 뉴욕 맨하탄 중심가와 대비되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 미술관은 관람객들의 연속적인 수직과 수평동선을 강력히 표현하는

나선형 램프가 그 공간적 주제이다. 이 램프는 미술품 관람시 항상 기울어진 바닥 위에서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야 함으로 인해 그 당시 미술가들에게 기능적 오류로 여겨졌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이 그 나선형 램프가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로 하여금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최상층에서 1층까지 연속적으로 장애물 없이 내려오면서 미술품과 천공광(skylight)을 받는 허공(void)을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에서 설계되었던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그가 구겐하임 미술관장에게 쓴 다음 부분의 편지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미술관은 최하층에서부터 최상층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비례로 이루어진 바닥 공간으로 연장되어야 한다. 즉, 휠체어를 타고도 건물 전체를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어느 곳에서도 멈추지 않고, 우리가 작품 하나 하나를 나누어 전시하고 싶어하는 대로 모든 그림들을 적절히 다루게 될 그러한 구분된 공간의 부분들이 위로부터 그 공간 내에서 장엄하게 빛난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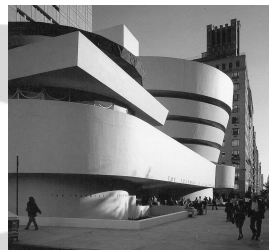


그림4-1. 구겐하임 미술관 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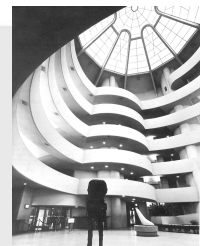


그림4-2. 내부 허공과 나선형 램프

도시의 문화적 장소들에 쉽게 접근할 수 없어 소외되어 온 장애인 및 환자들은 이 건물 속에선 편안한 연속적 움직임으로 정상인들과 비슷한 이동속도를 갖고 문화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 미술관은 도시적 맥락에 있어서 그 조형성의 적합성 여부가 많은 논란거리가 되어 왔다. 유기적 개념의 표현으로서 마치 산을 오르내리는 듯한 경험을 주는 나선형 램프에서의 연속적 움직임은 외부 형태로 그대로 표현되고 이는 합리적 개념으로서 뉴욕 맨하탄의 분절적인 격자망 도로 패턴과 강한 대조를 이룬다. 이미지(image)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러한 대비는 도시공간에서 건물내부공

3) Pfeiffer, B. Bruce. Frank Lloyd Wright Master Builder. New York: Rizzoli. p.152. 1997

: . . . A museum should be one extended well-proportioned floor space from bottom to top - a wheelchair going around and up and down, throughout. No stops anywhere and such screened divisions of the space gloriously lit within from above as would deal appropriately with every group of paintings or individual paintings as you might want them classified. . . .

간으로 이동하면서 정신적 해방감을 얻을 수 있는 역동적인 연속조망(visual sequence)을 조성한다. 낮은 천정높이로 압축된 어두운 출입구부분 공간에서 거대하고 밝은 중심 허공(void)으로 이동하며 심리적 해방감을 추구하는 라이트 특유의 공간적 표현기법이 유니테리언 교회나 존슨 왁스 사무동 에서와 같이 이 작품에서도 효과적으로 구현되고 있다.

허공간을 중심축으로 나선형이 이루어진 실내공간의 구도는 끝없이 하늘을 향해 이어질 것 같은 강한 팽창감을 외관에서보다 효과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이미지는 주변 도시환경의 획일적 구성에서 결여된 집중적이고 역동적인 공간에너지를 보완하여 자연경관에서 얻는 심리적 긴장이완의 효과를 갖는다고 본다.

3.5 파이퍼 주택(Arther E. & Bruce Brooks Pfeiffer House in Taliesin West, 1972, Scottsdale, Arizona)

이 주택은 라이트가 생전인 1938년에 계획안으로 남긴 도면을 사후에 그의 제자인 브루스 파이퍼가 탈리아센 웨스트 부지 내에 건축하여 실현시킨 것으로 사각형의 지붕 윤곽아래 각 실들의 평면이 완전한 원형(circle)으로 이루어져 있는 특이함을 보인다. 이러한 평면에선 선형적인 복도공간이 존재하지 않아 주택 내 보행 시 매우 자유로운 여유감을 갖게 하고 전이 공간인 파티오(patio)공간 속에서 시각적 오브제로서의 원형 각 실에 대한 다양한 조망성이 확보되고 있다. 여기서 예리한 모서리로부터 받는 긴장감 발생 요인이 거의 없고 목표 지향적이지 않으며 부유하는 이미지의 벽체 구성은 신체적 움직임의 원활함과 더불어 심리적인 생동감과 온화함을 동시에 부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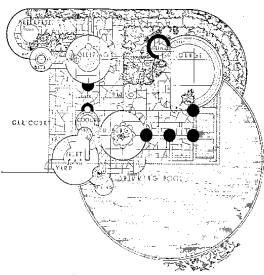


그림 5-1. 파이퍼 주택 기존계획 평면(원형방들 사이의 중앙 지붕아래가 파티오공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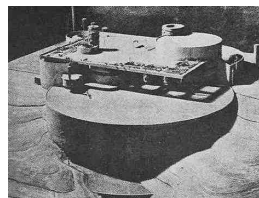


그림 5-2. 모형사진(기존계획안)

각 실 내부의 원형공간은 사용자의 신체가 중심적 초점임을 인지하게 하는 시각적 구도 및 행동반경을 갖기에 사각형 공간보다 주체적인 인간신체의 이미지를 보다 부

각시킬 수 있어 형태적인 면에서 강한 피난처적 감각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각 실의 외부인 파티오 공간에서는 사람의 신체 보다 시각적으로 강하게 인지되는 원형벽체의 조형성과 유연한 곡선의 흐름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피난처성이 약하고 조망성이 강한 성격을 보이고 있다.

다른 작품의 사례와 달리 여기서는 중심적으로 지배하며 상대적으로 다른 실들보다 큰 차이가 나는 거대한 볼륨의 거실이나 홀의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크고 작은 볼륨의 공간을 연계함으로써 조망성과 피난처성을 각기 강조하는 방식으로써 다른 작품에서 통상적으로 보인 수법과 달리 이 작품에선 외적으로는 원만하면서 두드러진 조형성을 갖고 내적으로는 포용하는 이미지를 갖는 원형의 사용을 통해 조망성과 피난처성의 대비적 구도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공간적 스케일의 압축과 팽창의 방식이 아닌 형태의 조절을 통해 피난처성과 조망성을 형성시킨 이 작품은 건물 내부에서 정적이고 편안한 산책로로서의 공간감을 높이 부여함으로써 치유환경의 성격을 갖는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림 5-3. 탈리아센웨스트의 파이퍼 주택 입구 정면외관



그림 5-4. 거실(원형라운지) 내부

4. 결 론

이상의 연구를 통해 라이트의 후기작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치유 환경적 특성의 근원적 원동력으로서 그의 디자인 태도 및 철학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삼각형과 원형의 비일상적인 형태구성을 토대로 자연의 질서와 변화의 구도를 독창적인 해석으로 건축에서 재현시키려는 태도이다. 일종의 모험과 같은 특이형태의 공간적 시도들은 전이공간을 활성화 시켜주었고 이는 대조적 공간표현의 다양한 요소들을 점차적인 변화감을 통해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심리적 카타르시스 가능한 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피난처적 현실성과 조망적 환상의 상호간 경계(interface)에서 활성화된 상호작용 장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각과 원의

요소가 적극 사용되었다.

둘째, 환상적 현실주의(Fantastic realism)의 철학으로서 환상의 형식을 취하지만 현실적인 내용의 목적을 강조하는 창작태도이다. 다시 말해 라이트의 디자인은 일견 자유롭고 변화무쌍하며 시적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표출하나 근원적 내용의 의미는 현실적이고 생산적인 측면, 즉 치유 환경적 특성과 항상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여기’의 현실적 공간성에 해당하는 피난처성과 ‘저기’의 환상적 공간성에 해당하는 조망성 개념이 라이트에게 있어 항상 함께 연계되어 해석되어야 하는 이유가 된다.

셋째, 일원론(monism)적 사상으로 물질과 정신세계간의 총체적(holistic)교감을 강조하여 치유환경 및 내면적 치유의 이미지를 조성하고 인간행태와 심리요소 모두를 배려(care)하는 태도이다. 본론의 사례분석에서 이는 총체적 치유환경의 요소별로 각기 다른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표출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즉 물리적 측면에서 높은 지원성을 보인 예로서 팔머 주택과 구겐하임 미술관, 사회적 친교의 측면에서는 팔머 주택과 유니테리언 교회 그리고 개인적 심리 측면에서 팔머 주택, 유니테리언 교회, 존슨왓스 빌딩, 구겐하임 미술관 및 파이프 주택 등이 높은 지원성을 보이고 있다.

참고문헌

1. 김광호, “공간표현과 감정특성간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의료복지시설학회지,11권 2호, 2005
2. 김광호, 생태적 매트릭스 공간, 미건사, 2004
3. 김광호 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와 르 꼬르뷔제의 조망성개념에 대한 비교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8권1호, 2002
4. 서수경,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자연을 품은 공간디자이너, 살림출판사, 2004
5. Hildebrand, Grant: Origins of Architectural Pleasur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USA, 1999
6. Hoppen, Donald W.: The Seven Ages of Frank Lloyd Wight, Dover Press, USA, 1993
7. Max Lüscher, 김지혜역: 우리안의 조화의 법칙, 까치글방, 2003
8. Pfeiffer, B. Bruce. Frank Lloyd Wright Master Builder, New York, Rizzoli, 1997
9. Robert L.Thayer,Jr. 양병이역: Gray World Green Heart, Technology, Nature, and Sustainable

Landscape/ 지속가능한 경관론, 태림문화사, 2000

10. Storrer, William Allin: The Frank Lloyd Wright Compan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USA, 1993
11. Wright. F.L, 윤정섭역.:라이트의 건축론, 건우사,1985